

군 계급구조를 고려한 조사방법론의 탐색

기 노 경*

I. 서론

사회구조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계층(혹은 계급)의 복합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비단 사회학적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회는 계층간 갈등과 협력, 타협에 의해 구조적인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다. 그러나 군 조직은 계급에 의한 명령복종관계에 의해 조직활동이 이루어지는 절대적 계급중심사회라는 특성상, 계층간 역동적 상호작용이 통용되지 않는 대표적 조직이다. 그리고 공조직중에서도 군은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는 특수성으로 군사보안에 관한 법률, 규정 등에 의해 많은 정보들이 공식적으로 제한된다. 상명하복의 계급구조와 군사보안의 엄격성은 조직과 관련한 구성원의 의사표현과 유용한 자료의 추출이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간 군 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많은 조사연구들은 이와같은 군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하고 깊이있는 조사영역을 설계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예를 들면 이공계 분야 뿐 아니라 사회과학분야의 의미있는 이론과 연구산물들이 군 조직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지금까지의 군 조사연구의 발전이 미진했었던 것은 일반적인 군 본연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지구 유일의 분단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한국군 고유의 속성에 근거하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도 그 간 시대변화에 맞게 개방적, 전향적인 마인드로 조직페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 그동안 안보의 성역으로 제한되었던 군 자료, 정보의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용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조사와 연구의 미개척분야인 피 연구 조직이 새롭게 부상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자의 입장에서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개병제에 의해 거의 모든 성인남자들이 군 복무 경험을 하게되는 상황에서 군 조직과 관련된 제반 조사활동을 통해 발전지향적 연구산물들을 제시하는 것은 학문적 의미이상으로 국가,사회적인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학적 조사연구의 흐름을 짚어보고 군의 태생적, 구조적 특성인 계급구조의 특성과 이를 고려한 조사영역의 설계 및 조사방법론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계급, 계층에 관한 이론적 고찰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는 희소자원의 소유정도에 의해 형성된다. 즉 사회계층체계는 '사회적 희소자원들의 불평등한 분배과정에 의해 형성된 위계체계'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개인은 사회의 불평등한 위치체계에 의해 생활의 기회 및 생활양식을 제한받으며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받는다(Matra, 1975).

계급이론의 고전적 효시의 역할을 한 막스는 생산수단 등과 같은 경제결정론적 시각에서 계층이 결정됨을 주장하며 양극화된 계급의 투쟁은 필연적이라고 하였다(Giddens, 1973). 베버(Weber, 1946)는 권력과 관련하여 계층의 차원을 분석하고 경제적 요인외에 기타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다렌도르프(Darendorf, 1959)는 자산의 소유여부에 의해 계급이 결정된다는 경제결정론적 입장을 비판하며 권위(authority)를 계급결정의 일반적 요인으로 강조하였다. 권위를 “경제적 조건과 관계없는” 사회관계의 유형으로 보며 이러한 사회의 권위구조가 계층형성과 갈등의 구조적 결정요인이라고 하였다. 막스류의 이론이 사회구조에 의해 형성된 자연적 산물이라는 구조주의 우위에 기반하고 있다면 베버류의 이론은 계급 또는 계급의식이 구조보다는 행위주체자들의 체험과 행위에 결과로서 인식된다는 점에 중점을 둔다.

베버의 주장을 승계한 톰슨은 구조보다 행위주체자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위주체자들의 체험과 행위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강조하였다(구해근, 1991). 이와 같이 계급, 계층을 보는 시각을 구조와 행위로 크게 대별하여 볼 수 있지만 어느 한쪽논리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계급을 보는 이분법적 구도로서 구조와 행위론적 관점에 접근하기 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한 통합적 관점으로 현상에 근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이가 기든스이다(Giddens, 1984). 그는 구조의 이중성(duality of structure)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조는 행위의 매개체이며 동시에 재생산되는 행위의 산물이라고 하였고 역으로 조직행위는 구조와 행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하며 계급의식을 행위의 과정, 즉 생활양식에 의해 구별되는 집합적 태도와 신념에 대한 인식과 수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양춘, 1999).

계급의식을 보는 또 다른 관점은 계급의식의 연구범주를 지각적 측면, 관계적 측면, 정치적

측면으로 보는 것이다(김문조, 1999). 계급의식의 지각적 측면은 개인응답자들이 스스로 느끼는 계급귀속의식, 계급정체성과 같은 개념들이다. 다음으로 관계적 측면은 동류의식, 친근감, 사회적 거리 등을 지표화한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끝으로 정치적 측면은 분배정의에 대한 인식, 사회갈등에 대한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차원의 계층체계에 관한 이론과 연구들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이슈들을 기반으로 하여 군 계급구조에 적합한 방법론을 탐색하고자 한다.

Ⅲ. 군 조직 조사연구의 현상

1. 군 조직의 특성

사회학의 이론적 발전과정에서 계층 및 계급구조에 대한 담론들이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Wright, 1976 ; Parkin, 1971 ; Giddens, 1973 ; 김영모, 1982 ; 1984 ; Koo and Hong, 1980 ; 서관모, 1984 ; 홍두승, 1983 ; 양춘, 1999). 위의 논의들은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모순이나 제도화된 불평등체제에서 초래되는 사회세력들의 관계구조에 중점을 두고 인구센서스 자료나 표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계급의 크기와 종류, 계급의 구조변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양춘, 1999). 그러나 좀 더 미시적 차원에서 특정 조직영역의 계층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다. 그것은 제한된 조직영역에서 계층, 계급과 같은 거시적 개념을 다루기가 부담스럽고 계층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 확보가 쉽지 않고, 표본 집단의 비정형적 분포 등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군 조직의 경우 명확하게 구분되는 계급집단들이 존재하고 집단간 특질들이 확연히 차별되어 있으며 계급과 직책에 의한 강제적 권력관계가 정당화되어 있는 특수한 조직이다(Janowitz, 1995). 조사연구 측면에서 보면 조직수준에서 계급구조의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군 조직은 조직의 운용주체인 장교그룹과, 조직하부의 실무적 운용주체인 부사관그룹, 조직의 실행주체인 병사그룹으로 크게 구분된다. 민주사회의 도래이후 사회의 제반계층이 명목상 신분별로 차별화되는 계급사회개념에서 탈피했으나 군 조직은 아직도 철저한 계급신분에 의해 조직이 운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군에 한정해서 보면 해방이후 50년이 흐르면서 군은 상명하달이라는 위계체제하에서 규정이나 방침 등에 의해 조직안에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공유하는 가치 및 문화가 형성되었다. 대표적인 군의 문화적 속성으로는 엄격하고 획일적인 규범의 강조, 집단의식, 명예의 존중, 권위주의, 완전무결주의 등을 들 수 있다(김세영, 1996). 유사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가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지휘관을 중심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엄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하므로 군의 가치와 문화는 군 조직 운용의 주체인 간부들에 의해 조직화되어 하향식으로 전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병사들은 지휘체계하의 명령복종 구조속에서 피동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계급적 위치에 있다. 군의 계급적 위계질서로 인해 외관적으로 군은 계급에 불문하고 통일된 가치관,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계급신분에 의해 나뉘어진 계층 구조는 계급특성에 맞는 문화적 특질을 만들었고 계급간 원활한 의사소통체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각 계층의 근원적 태생여건의 차이와 함께 장교, 부사관, 병 그룹 간 각기 상이한 인식 기제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2. 기존 군 조사연구의 행태와 한계

조사연구측면에서 군 조직의 계급구조 특성은 조사설계부터 범위,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조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군 대상 조사연구의 행태분석을 통해 군 조사연구의 한계에 근거한 몇 가지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조사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하고 세심한 조사설계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군 조사연구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설문조사의 경우, 계급구조적 특성은 응답자의 내면적 의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응답자 자신의 생각보다는 '정답'을 말한다든지, 지휘 계통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솔직하지 않은 응답을 한다든지, 역으로 지휘 계통을 이용하여 대리 응답을 한다든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군 조사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람직한 응답경향인 속임행동(faking), 자기노출 기피현상, 불성실한 응답 등이다(한국국방연구원, 1999). 이와 같이 군 조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설문문의 경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이 군 조직 조사의 현실이다. 아래 표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사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1> 민감한 조사사안에 대한 응답태도(한국국방연구원, 1995)

	개인적 비밀	지휘관 능력	부대 문제점	국방현안
매우 솔직하게 응답	13.4	22.0	12.8	39.3
어느 정도 솔직하게 응답	45.9	37.5	24.0	34.7
보통으로 응답	24.9	27.6	29.3	18.8
약간 솔직하지 않게 응답	9.8	10.5	20.7	4.0
전혀 솔직하지 않게 응답	5.9	2.3	13.2	3.3
계	100 %	100 %	100 %	100 %

<표 2> 신분노출 우려 및 검열의심시 대처방법

	신분노출 염려시	검열 의심시
그래도 솔직하게 응답	32.9	26.6
좋은(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	62.7	64.5
제멋대로 응답	2.7	3.9
전혀 응답하지 않음	1.7	4.9
계	100 %	100 %

<표 3> 대리응답 경험 및 응답방향 지시

	대리응답 경험	응답방향 지시
자주 있음	3.9	1.6
가끔 있음	43.5	29.2
없음	52.6	69.2
계	100 %	100 %

둘째로 다양한 조사 자료의 확보에 관한 이슈이다.

대부분 설문지 등 1차 자료에 의존한 현상분석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을 분석할 때,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설문, 면접, 관찰 등과 같은 1차 자료들의 축적데이터와 함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축적되어온 2차 자료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 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학적 조사는 특정 이슈와 주제와 관련된 설문조사에 과도하게 의존해 오고 있어 보다 다양한 조사 자료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조사를 통한 연구설계 및 검증기법의 다변화, 심층화에 관한 문제이다.

군 조사연구의 대부분이 주요현안이슈가 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인식조사 차원에 머무르는 경향이 많고 조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도출해 내는 인과관계 검증형태의 연구들은 보기 힘들다.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논문들도 대부분 리더십이나 사기 등과 같이 조직심리분야와 관련된 제한된 인식 및 행위요인에 국한한 경우가 많아 군의 계급 구조적 특성과 관련한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 역학 요인들을 검증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IV. 군 계층구조 분석과 조사 방법론의 탐색

위에서 현재 군 조사연구의 흐름을 한계점 위주로 살펴보았고 여기서는 군 조직 조사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특수성을 고려한 조사방법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군 조직을 대상으로 한 분석단위 및 수준은 개인, 팀(분대, 소대 등), 조직과 같이 조사대상의 구조적 위계에 따라 분류해 볼 수도 있고 병사, 부사관, 장교 집단 등과 같이 조사대상의 신분별 위계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겠다. 전자의 구조적 위계수준에 따른 분석단위에 있어서도 소속 집단 안에 포함된 계급적 위계 속성이 해당 집단의 발현적, 혹은 내재적 요인의 중요한 영향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군 조직의 인식적, 행위적 메카니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계급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설계가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은 조사통계자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의 통계연보, 각군의 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DB화하고 추가적으로 보다 풍부한 지표들을 담고자 하는 노력들이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 있어 다양한 자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설문기법 등의 한정된 조사기법에 의존한 조사결과의 신뢰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군 조사 연구부문이 보다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위와 같은 과정들이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연구자들은 연구자료의 확보를 위해 경주하는 노력을 줄이고 보다 다양한 조사방법론과 분석기법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의 계급, 계층의 분류관점과 연계하여 군의 계급구조하에 계층별 차별화가 예측되는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계층분류요인

구 분	내 용
구조적(객관적) 요인	권위의 관계/정도, 생활통제, 기회여건,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
지각적 요인	계급귀속의식, 계급정체성, 목표, 가치, 기회주의, 합리주의 등
관계적 요인	동류의식, 계층간 거리, 친근감 등
정치적(행위적) 요인	절차/분배 불공정 반응, 갈등표출/해소, 의사표현수단/방법 등

이와 관련하여 위의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도출하여 군의 계급구조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방향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계급별 차별화된 영향요인의 속성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의 개발이다.

그들간 비교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방법론이 분산분석기법이다. 일부 군 조사연구에서도 분산분석을 활용한 연구논문들을 볼 수 있으나 단순하게 계급별 인구통계학적 차이나 생활인식 등과 같은 요인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계급구조상에 내재

되어 있는 잠재요인(latent factor)들을 찾고 이들이 계급별 인식과 행위구조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도출, 분석해 내기 위해서는 일회적 분산분석이 아닌 다양한 상황, 조건을 고려한 반복측정(repeated measurement)된 분산분석, 계층에 따라 종속변인 프로파일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다변량 분산분석(MANOVA)기법 등이 군의 계층별 그룹비교연구에 있어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집단의 관계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나무그림(dendrogram)과 같은 방법론 등이 위의 요인들의 집단차이를 검증하고 추가적인 영향요인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군집분석을 통해 군 계층그룹의 속성별 군집분포 및 그룹간 거리의 차이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군집분석을 군별(육, 해, 공군, 해병대), 제대별로 분류하여 측정하면 단순히 계급별 계층의 분포차이 분석에 추가하여 군 유형분류별로 차별화되는 군집의 분포 분석을 통해 구조적으로 차별화된 조직간 공통적, 혹은 이질적인 요인들을 도출, 분석해 볼 수 있다.

둘째, 군의 통제구조 속성을 고려하여 병 계급집단을 중심으로 한 보다 심층적인 행동분석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군 입대를 통해 일종의 군사사회화과정을 겪고 다시 사회로 환원될 병 계급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요인들을 상황, 시기별로 측정, 분석해 보는 것은 학술 및 정책적 기여 분야 양 측면 모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는 시간경과에 따른 병사인식 및 행위요인의 추이변화를 분석하는 시계열 분석이나, 종단자료를 구성해 특정요인별 인과관계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병사그룹을 대상으로 한 시간적 경과에 따른 연구설계에서 특정 피험자계층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패널조사와 같은 시간에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는 피험자계층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코호트 조사 모두 쓰임새가 있다. 패널조사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지위향상, 즉 계급이 높아짐을 의미하므로 계급상승에 따른 인식, 가치관, 관계와 같은 요인들의 변화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코호트 조사를 통해서도 시기, 혹은 시대별 코호트, 즉 계급별 병사 그룹들의 특성변화요인을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강제적 통제구조 속에서 생활하는 병 계급집단의 계급별 인식, 관계, 행위 측면의 차이를 통해 병사들의 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염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군에서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제도를 시행하기 전 일부부대를 대상으로 시험 적용하여 효과 정도를 판단해 보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비 전문가인 간부들에 의해 수행되는 일회적 설문조사나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비구조적인 면접조사에 의해 결과도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학적이고 구조적인 실험측정설계 방법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군의 경우 병영현장의 통제구조가 실험통제환경에 적합하여 주기적 조사,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십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는 실험설계를 한다면 오류요인을 최

소화하여 병사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계층간 의사소통의 간극을 줄이고 최적의 합의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론 연구가 요구된다.

군에서 시행되고 운용되는 제도, 정책, 규범에 대한 인식, 의견들을 계급별로 수렴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해 내는 방법론의 개발은 다른 기준과 가치를 가진 합의주체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대표적으로는 델파이 기법, AHP(계층분석기법) 등의 분석방법론 등이 있다.

델파이 기법은 집단간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쉽지 않은 조직문화에서 주로 이용되는 의사결정으로 군 조직의 경우 일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장교계층에 한해 활용하고 있으나 부사관 및 병 계급까지 확장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일컫는 계층분석기법은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를 계층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인 가치 계층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가치계층화란 의사결정 주체의 가치가 계층별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암묵적 가정을 내포하여 상위층에는 보다 포괄적 가치가, 하위층에는 보다 구체적 가치기준으로 구조화하여(Pitz & Riedel, 1984), 정책추진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의 주관적 관점에서 목표, 기준, 대안들을 계층적으로 구성하여 양, 질적 정보에 바탕을 둔 최적의 의사결정을 찾는 분석방법이다(Saaty, 1990). 이 방법은 민감한 정책, 제도의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간부계층을 대상으로 주로 활용될 수 있겠으나 사안에 따라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합의도출이 요구될 때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설정한 기준과 대안들 간 비교척도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표 5> 기준과 비교를 위한 척도의 예

정량적 척도	정성적 척도	설 명
1	동등하게 중요함 (equal important)	두가지 혹은 대안의 중요성이 동일함
3	약간 중요함 (weak important)	하나의 기준 혹은 대안이 다른 것에 비해 약간 중요함
5	상당히 중요함 (strong important)	하나의 기준 혹은 대안이 다른 것에 비해 상당히 중요함
7	대단히 중요함 (very strong important)	하나의 기준 혹은 대안이 다른 것에 비해 대단히 중요함
9	절대적으로 중요함 (absolute important)	하나의 기준 혹은 대안이 다른 것에 비해 대단히 중요함
2, 4, 6, 8	인접한 척도값 사이	타협이 필요한 경우
위수의 역수		두가지 혹은 대안의 중요성이 역으로 평가될 경우

V. 맺음말

지금까지 군의 조직특성을 고려한 조사방법론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계급과 관련한 연구들은 사회구조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고 현재도 다양한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단위에서 발생하는 계급, 계층의식을 다룬 연구는 보기 힘들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 조직차원에서 계급과 관련된 이슈를 다양한 수준, 요인별로 분석하는 연구는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연구자에게 군 계급구조 연구가 함의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계급구조특성을 정확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조사 설계 및 연구방법론의 개발이다. 군의 계급은 직위의 상하개념이 아닌 신분의 상하개념에 의해 운용되는 특수한 조직으로 계층의 구별이 명확하고 그에 따라 선명하게 구분되는 특성요인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계급별 차별화된 문화가 존재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군 조직단위의 계급구조 분석방법론의 개발은 일반사회조직의 현상을 연구하는 데에도 유익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군 계급구조 연구를 통해 군 조직에 선순환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다. 군의 계급구조는 전시 지휘관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명령체계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군의 필수적인 구조이다. 그러나 이것이 계급적 위계를 강조한 나머지 권위적, 억압적 성격에 지나치게 경도된다면 상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계급간 괴리를 발생시켜 결국 군 전투력에도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 계급간 위화감, 불신, 물이해와 같은 괴리적 현상의 본질적 요인을 도출하여 태생적인 계급의식을 줄이고 계급간 간극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군 조직은 대다수 젊은이들이 생의 중요한 시기에 군 복무경험을 함으로써 제대 후 시민의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도장의 역할과 함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조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 위계적 계급구조하의 군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학적 조사연구의 의의는 학문적으로 풍성하고 의미있는 학술적 연구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는 군의 궁극적 목표인 전투력의 극대화 달성에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 김문조, 1999, 해방 50년 한국사회의 계급·계층의식 . 미발표논문
- 김세영, 1996. "군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발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 pp.34-46.김영모, 1982. 「한국사회계층연구」 . 서울: 일조각.
- 김영모, 1984. "한국의 사회변동과 계층구조". 경향신문사. 사상과 정책」 . 1(2): 6-18.
- 서관모, 1984.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성과 계급분화: 뿌띠부르조아지의 추세를 중심으로」 . 서울: 한울.
- 양춘, 1999. "한국의 계층구조의 변화(회고와 전망)",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 2(1). pp.5-31.
- 한국국방연구원, 1995. "국방의식조사체계 활용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출판부』 .
- 한국국방연구원, 1999. "국방의식조사체계 기반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출판부』 .
- 홍두승, 1983,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 서울: 법문사
- Darendorf, .R. 1959.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Giddens, A. 1973.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avanced Societies*", New York: Harper & Row.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lif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nowitz, M. 1995. "*Hierarchy and Authority in Social and Military Establishment*", NY : Russel Suge Foundation, , pp.27-69.
- Koo. H. and Hong D. S. 1980. "Class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August): pp.610-626.
- Matra, J. 1975. "*Social Inequality, Stratification and Mobilit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Parkin, F. 1971.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Social Stratification in Capitalist and Communist Societies*", London: Mac Gibbon and Kee.
- Pitz, G.F. and Riedel, S. 1984,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 tree representations", *Acta Psychologica*, 56: pp.59-70.
- Saaty, T.L. 1990.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Pittsburgh: RWS.

Weber, M.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Wright, E.O. 1976. "Class Boundaries in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New Left Review* 98: pp.3-41.